

# 민요에 나타난 첩의 위상

길 태 숙\*

1. 머리말
2. 민요에 나타난 첩의 이미지
  - 2.1 남성성 과시를 위한 사랑스런 도구
  - 2.2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죽이고 싶도록 미운 가해자
  - 2.3 불안한 사랑에 의지한 또 하나의 피해자
3. 치유와 강화의 딜레마
4. 맺음말

---

\*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visiting scholar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첩과 관련된 민요에 나타난 향유자들의 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그 노래가 민요 향유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첩과 관련된 민요에서는 각각 첩에 대한 본처, 남성, 첩 자신의 시각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노래의 대부분은 본처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드물게 남성의 시각을 드러낸 노래와 첩 스스로의 위상을 보여주는 노래를 찾아볼 수 있다.

남성적 시각을 드러낸 민요에서 첩은 사랑스런 존재이며 자기과시적 소유물이고 대를 이어주는 도구로 그려지고 있다. 사랑스런 존재이면서 소유물이라는 모순된 시각은 첩이 남성에게 주체적인 여성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도구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첩을 죽이고 심도록 미워하는 본처에게 첩은 또 하나의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처는 첩에 대해 강한 적개감을 드러내고 가해자로 인식하지만, 그 적개감의 이면에서 본처가 첩을 남편의 사랑을 받을만한 사랑스런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첩 스스로는 나이 많은 남성의 성적도구로밖에 살수 없는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매우 개인적이고 제한적으로 나타나 있을 뿐 여론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본처 집단이 여성민요 향유층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첩은 그 향유자들 사이에 끼일 수 없으며 끼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위상을 드러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본처의 입장에서 불리는 대부분의 첩관련 민요는 첩을 과장되게 욕하거나 본처의 위치가 첩보다 낮다는 의식을 느리냄으로써 본처가 설 때문에 받은 상서를 시유하는데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노래들은 순종과 인내를 담보로 한 본처의 금지를 강조하거나 문제적 상황을 여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표현함으로써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가 제시한 가정의 여성의 역할수행을 강화하는데 기능하기도 한다.

핵심어 : 첩, 첩노래, 첩의 이미지, 소유물, 가해자, 성적 도구, 가부장제, 본처집단, 주체적 여성, 도구화된 여성, 여성과 여성의 대립.

## 1. 머리말

민요에서 첩은 어떠한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가? 민요의 주 향유층이 향촌사회구성원이라고 할 때, 민요에 나타난 첩의 이미지는 향촌사회구성원의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첩이 중심이 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첩과 관련된 연구는 대개 조선시대의 양반, 서울, 기록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sup>1)</sup>. 그러므로 민요에 나타난 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중앙권력이나 문자 생활에 소외된 이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 민요와 관련된 첩에 대한 연구<sup>2)</sup>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 모두 첩이 논의의 중심이 된 연구는 아니었다. 서사민요에 등장한 여성인물들 전반에 대한 논의 가운데 첩이 다뤄진 것이며, 첩보다는 본처나 며느리로서의 여성의 삶에 주목한 것이었다.

첩이 등장하거나 첩이 소재가 되는 민요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려 있는 첩과 관련이 있는 노래를 살펴본 결과 이중 대부분은 본처의 입장에서 불린 것이며, <모심기 노래> 중 일부본

1) 정지영, 「조선후기 첩과 가족질서-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호(한국사회사학회, 2004.5), pp.6~37.

조은·조성윤, 「한말 서울지역 첩의 존재양식-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호(한국사회사학회, 2004.5), pp.74~100.

이성민, 「조선중기 양반의 성관념과 그 표출양상」,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집문당, 2003).

이이호제, 『조선조 사회와 가족』(한울아카데미, 2003), pp.106~109.

박무영, 「남편의 '잉첩'과 아내의 '적국'-「한씨규훈(韓氏閨訓)」과 「자경편(自警編)」의 '첩다루기'가 의미하는 것」, 『문헌과 해석』 18호(태학사, 2002).

정병설, 「가정설화의 여성적 시각-첩과 계모이야기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7호(진단학회, 1999), pp.517~528.

2)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대응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과 여성』(한국구비문학학회편, 박이정, 2000), pp.91~122.

서영숙, 『시집살이 노래연구』(박이정, 1996), pp.44~48.

에 속해 불리고 있는 것과 드물게 남성의 입장에서 불린 노래나 첩의 마음을 나타낸 듯한 노래를 찾아볼 수 있었다.

본처의 입장에서 불린 노래는 <첩노래>,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 <시앗죽은 편지받는 노래>, <수저소리 노래> 등이 있다. <첩노래><sup>3)</sup>는 잘 차려입고 첩의 집에 가는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하며, '첩의 집은 꽃밭이고 나의 집은 연못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노래이다.

해는지구 저무신날에 으갓(의관)을하고서 어덜가오 첩에집이 가시려거  
던 나죽년꿀얼 보고가오

첩에집언 꽃밭이요 내의집언 연못이라 꽃과나비는 봄한철이요 연못의  
금봉어는 사시사철(4-2 597<sup>4)</sup>)

<첩노래>의 각편은 예시한 노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보통 <첩노래>라고 일컬어지지만 본처의 입장에서 불리는 노래이며, <장부 타령>, <해는지고>, <부녀요>, <본처노래>라고 불리기도 한다.

<진주낭군><sup>5)</sup>은 많이 알려진 노래이다.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간 여성이 석삼년을 묵묵히 일만하며 살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이 기생첩을 데리고 노는 것을 목격한 후 자살한다는 내용의 노래이다. <큰어머니 노래><sup>6)</sup>는 본처가 칼을 품에 품고 첩의 집에 갔다가 그냥 돌아

3) 4-1 560, 4-2 387, 4-2 597, 5-2 691, 5-4 1057, 6-8 783, 6-8 790, 7-4 450, 7-10 727, 7-10 745, 7-18 254, 7-18 455, 8-5 452, 8-5 541, 8-6 982, 8-9 1200 등

4)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0~1988)의 책이름은 생략하고 책의 번호와 노래가 시작되는 면의 수를 표기하도록 하겠다.

5) 2-9 494, 3-1 481, 4-4 822, 4-6 238, 5-1 34, 5-2 148, 5-2 675, 5-7 233, 5-7 670, 6-8 790, 6-8 756, 6-10 405, 6-11639, 7-1 510, 7-2 439, 7-4 278, 7-4 347, 7-5 201, 7-5 235, 7-5 375, 7-7 646, 7-8 480, 7-12 562, 7-13 856, 7-14 433, 7-14 814, 7-15 648, 7-16 176, 7-16 217, 7-17 665, 7-18 221, 8-3 425, 8-5 724, 8-8 406, 8-9 1198, 8-11 766, 8-13 429, 8-14 602 등

6) 6-8 894, 6-10 374, 7-4 363, 7-4 403, 7-5 340, 7-8 185, 7-8 1049, 7-9 1102, 7-11 874, 7-16 245, 7-18 614, 8-1 391, 8-2 94 등

오는 내용의 노래이다. 이 노래에는 본처의 눈에 비친 첩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시앗죽은 편지 받는 노래〉<sup>7)</sup>는 본처가 일하다가 부음을 받는 노래인데, 일하다가 첩이 죽었다는 부음을 받고 매우 좋아하는 노래이다. 이 노래의 노랫말은 〈큰어머니노래〉 등 다른 노래의 뒤에 붙어 불리기도 한다. 〈수저소리노래〉<sup>8)</sup>는 방안에서 나는 수저소리에 본처의 간장이 다 녹아내린다는 노래로, 본처의 간장이 녹는다는 것과 주변 상황을 통해 방안에서 나는 수저소리가 남편과 첩의 수저소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노래다. 6-11 〈처첩의 노래〉에서는 〈수저소리노래〉에 〈시앗죽은 편지 받는 노래〉가 이어져 있다.

그 외<sup>9)</sup>에 첩에게 마음을 빼앗긴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 힘들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본처가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다.

〈모심기 노래〉<sup>10)</sup>에 포함되어 있는 첩과 관련된 대표적인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물고청청 혈어놓고 주인양반 어데갔소

문에전복 에와서들고 첩의 방으로 놀러갔네(8-4 614)

상당수의 〈모심기 노래〉에 위에 예시한 노랫말이 포함되어 불리고 있으며, 이외에 본처의 입장에서 불리고 있는 〈첩노래〉나 〈큰어머니

7) 4-4 918, 6-5 86 등

8)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실제 명칭은 〈노랫가락〉이나 〈강강술래〉로 되어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는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아 필자가 임의로 붙인 명칭이다.

9) 7-4 300, 8-11 283, 8-12 632 등

10) 1-1 837, 1-3 572, 1-6 603, 2-9 493, 4-6 78, 7-2 511, 7-3 721, 7-3 538, 7-5 112, 7-14 619, 8-1 146, 8-1 391, 8-1 460, 8-4 187, 8-4 614, 8-4 739, 8-5 136, 8-5 441, 8-5 448, 8-6 964, 8-8 443, 8-9 523, 8-10 265, 8-11 528, 8-14 725 등

노래>가 <모심기 노래>에 포함되어 불리고 있다.

남성이나 첩의 입장을 드러낸 노래는 본처의 마음을 드러낸 노래처럼 유형을 이루고 있기보다는 각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첩이 스스로의 위상을 드러낸 노래<sup>11)</sup>로 여겨지는 각편은 3-1 508 <어랑타령>, 4-4 817 <창부타령>, 5-3 739 <장차 못 살 이 몸이라면>, 6-11 718 <사랑가>, 7-14 441 <정노래> 등이 있다. 이들 노래에서는 자신의 신세 한탄을 남에 대한 원망이나 걱정으로 풀어내고 있다.

남성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노래로는 1-7 969 <배치기소리>, 1-9 527 <초부가>, 4-4 473 <건달타령>, 6-8 899 <놀다가소>, 6-10 112 <난봉가>, 6-11 639 <여인을 희롱하는 노래>, 8-14 603과 604의 <살림살이 노래> 등이 있다. 이들 노래에는 첩과 희롱하고 싶은 남성의 마음이 실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첩과 관련된 이들 노래들에서는 본처나 남성들의 첩에 대한 인식을 읽어낼 수 있으며, 부족한 자료를 통해서나마 자신의 위상에 대한 첩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첩과 관련된 민요를 통해서 민요에 나타난 향유자들의 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 노래들이 민요 향유자들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 2. 민요에 나타난 첩의 이미지

### 2.1 남성성 과시를 위한 사랑스런 도구

남성에게 있어서 첩은 어떠한 존재인가? 사랑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11) 여기 예시한 첩의 입장에서 불린 노래는 노래의 주체를 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첩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첩을 포함한, 남성과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관계를 맺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부른 노래라고 볼 수 있다.

부인을 두고도 곁에 두고 싶은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민요에서 남성의 눈에 비춰진 첩은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자기 과시적 소유물이고, 대를 이어주는 도구이다.

〈모심기노래〉에 포함되어 불리고 있는 노랫말과 6-10 112 〈난봉가〉를 통해 남성에게 있어 첩은 낮이나 밤이나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며, 당장 일해야 하는 일거리를 두고도 찾아가서 보고 싶은 존재이며, 비가 올 때도 말쑥하게 차려 입고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산남에라 첩으물두고 낮에 가도야 범나는 골에 밤에 가도야 범이 아니  
나네(8-1 146)

바람불고도이 비오는데 첩의집에이 우찌가나 우산갈모를 바치씩고이 첩  
의집에의 나는간다(8-4 187)

머슴첩이 대단해서 밤에나가고 낮에가노 낮으로는 놀러가고 밤으로는  
자로가요(8-5 136)

등념에다가 첩을두고 비가와서 문가봤네 전주유삼 새유삼에 갈모로받쳐  
찌고가네(8-14 725)

저산념에 소첩을두고 밤길치기가 난감이제 갈때는 무섭지않은데 올때는  
무섭다고했제(6-10 112)

첩이 이렇게 사랑받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첩이 남성의 과시적 소유물이라는 것도 한몫한다. 〈살림살이 노래〉<sup>12)</sup>에서 보인 단란한 집의 모습은 첩이 포함된 그림이다.

대골걸은 이내집에 안택이는 베잘짜고 첩은 첩첩 술거리고  
아들애기 공부하고 딸애기는 동자하고 수저통통 놓는소리 만자미가 지  
닥지딱(8-14 603)

12) 8-14 603, 8-14 604

바깥에서 농사일을 잘 하고 들어왔을 때 본처는 베를 짜고 있고, 아들은 공부하고 있으며, 딸은 밥을 짓고, 첩은 술을 거르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다. 길쌈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본처와 여가 생활을 담당하는 첩을 갈등 없이 거느리는 모습에서 단란한 가정을 꿈꾸는 남성적 시각에서 첩을 통한 자기 과시적 면모를 읽어낼 수 있다. 첩을 두는 일은 돈이 많이 드는 일<sup>13)</sup>이었기 때문에 남성의 경제적 능력을 표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남성에게 돈이 생겼을 때 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는 첩을 두거나 기생을 사는 일이다.

사십명동사는 조기퍼신는데 배임자사공은 계산만댄다 에-에이야 어-어  
이 어야 어야유

오동추야 달밝은데 죄기잡이가 재미가난다

우리배임자 거동보소 어주탕관을 찾아쓰고 색주가집에서 능청만친다  
(1-7 969 <배치기소리>)

능수봉떼미가 돈떼미면 원삼면갈보는 내갈보된다(1-9 527 <초부가>)

오늘은 호이사(회사)에 월급날인디 이른아침 어찌하여 월급을 타서 기  
생을 살까나 갈보를살까나(4-4 473 <건달타령>)

<배치기소리>는 연평바다로 조기를 잡으러 나가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을 표현한 노래이다. 그런데 만선이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된 배임자가 처음으로 한 일은 기생집을 찾는 일이다. 이는 기생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함과 동시에 만선에 대한 자기 과시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무하러 간 <초부가>에서의 나무꾼도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기생을 사고 싶다는 포부를 노래하고 있으며, <건달타령>에서의 월급쟁이도 회사에서 받은 월급으로

13) 저건네다 첩을두고 첩으야양식 근반일래(7-3 721 <모심기 노래>)



기생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논의된 <모심기 노래>에서나 <난봉가>에서의 첩에 대한 남성적 시각은 본처에게 비취진 남편의 모습일 가능성도 없진 않다. <모심기 노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불리는 노래이고 6-10 112의 <난봉가> 또한 여성 창자에게 불린 노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치기노래>, <초부가>, <건달타령>에서의 도구화된 첩의 이미지는 남성에 의해 불린 남성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생은 첩과 다르다. 하지만 <초부가>에서의 ‘내갈보’에서처럼 자기소유의 여성을 두고자함은 기생과 첩의 구분이 허물어진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숙종실록』에는 조정의 관원으로서 관기를 첩으로 삼는 경우가 흔했다는 기록이 있다<sup>14)</sup>. 영조 때에는 기생 첩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신고하게 하여 그들이 데리고 있던 기생첩을 본래의 소속 읍으로 돌려보냈다<sup>15)</sup>고 한다. 양반사회에서는 기생을 첩으로 삼았다는 것이며 그 수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요향유자들 사이에서도 <진주낭군>에서 남성과 희롱하는 여인이 기생첩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볼 때 기생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계층에 상관없이 기생이 첩이 되기도 하는 사회 환경 때문에 기생과 첩에 대한 인식에는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32년에 발행한 『실생활』에 실려 있는 「축첩군을 쏘노라」라는 기사<sup>16)</sup>에는 축첩하지 말 것을 주장하기에 앞서 필자 스스로가 축첩군의 변명으로 내세운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하고 있다.

그들은 아마 여출일구(如出一口)로 다음과 같이 변명하며 발악할 것이다. 「군소리 마라 열백번 죽어도 내첩은 못놓겠다. 한무제같은 냇냥반들은

14) 『숙종실록』 권40, 30년 11월 11일 : 정지영, 앞의 글 p.14 재인용.

15) 정지영, 앞의 글, pp.14~15.

16) 계정학, 「축첩군을 쏘노라」, 『실생활』 3권 6호(1932.6.), pp.28~31.

삼천미인식이나 첩을 두었었는데 겨우 한두서넛의 소실(小室=妾)쯤이야 뭐 제격이지 인생은 자유다 내것가지고 내맘대로 하다가 망해도 내가 망하는데 쏘다니 누구를 쏘아? 걱정이냐? 심술이냐?」 하고, 따는 생명재산의 자유가있는지금세상이라 제것가지고 제마음대로하는데 누가막으랴

이 기사에서 보인 첩에 대한 인식은 민요에서의 첩에 대한 남성적 시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사에서 첩은 남성의 재산에 속하여 남성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곧, 첩은 남성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사고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라도 팔 수 있는 것이다.

유월달이 두달일란가 첩을팔아 부채샀네 구시월이 다치오니 첩이야생각 절로나네(8-4 614)

오월유월에 하도나더버 첩을팔아 부채를샀네 구시월에 판에실어 처보야생각 절로만난다(8-5 448)

유월 윤달이 낀 매우 더운 해에는 끼고 있을 첩보다 부채가 요긴하기 때문에 첩을 팔아 부채를 샀다는 표현 속에서 첩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남성적 시각을 읽어낼 수 있다.

첩은 남성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 자기 과시를 위한 이유 이외에 대를 잇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다음은 <모심기> 노래에서 불리는 노랫말이다.

이논빼미 모를심어어 잡나락이 반치로네 득남해라 첩을 뒀다이 기생첩이 반치로다(8-8 443)

위의 노랫말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두었는데, 첩만 많이 생

겼다는 것을 눈에 잡초가 반이 넘게 생긴 것으로써 비유하고 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첩이 잡초같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볼 때, 첩은 출산의 주체로 여겨지기보다는 남자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첩을 대를 잇는 도구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는 가부장제 하에서의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2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죽이고 싶도록 미운 가해자

본처는 첩에 대해 강한 적개감을 드러낸다. <시앗죽은 편지받는 노래>나 8-14 <첩노래>에서는 이러한 본처의 마음을 극대화하여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편지왔네 편지왔네 서울에서 편지왔네 앞문에서 받은편지 뒷문앞에 피어보니

씨아죽은 편지로시 고기에도 쓰든밥이 소금에 묵어도 담도다네(6-5 86)  
어떠한 잡년이 임종다 케였는고 그년을 잡아다가 에헤 장조름을 할겨나  
정들고 못살기는 작은에미 요사요 그년을 잡아다가 에헤 장조름을 할겨나(8-14 134)

위의 노래에서 본처는 첩에 대한 적개심을 과장되게 풀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본처의 첩에 대한 적개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남편을 나눠 갖는다는 점 외에 본처의 눈에 비친 첩은 자신과 전혀 다르게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인데, 그러한 첩의 풍요로운 삶이 남편과 자신의 노동력의 착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낭군>에서는 일하는 부인과 남편과 놀고 있는 기생 첩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다. <수저소리노래>에는 전후사정 없이 방안에서 나는 수저소리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 수저소리에 부인의 마

음이 타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는 <진주낭군>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즐기고 있는 기생첩과 남편을 방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다. <큰어머니 노래>에서 첩을 죽이려고 칼을 갈아가슴에 품고 첩의 집을 찾아간 본처의 눈에 비친 첩의 모습과 첩의 살림은 매우 넉넉한 것이었다.

이래가주고 안되로다 행주처말랑 들치입고 짚신한짝 짝을 지어서 신을  
신고 혼튼머릴랑 집어꼭고

행주처말랑 들치입고 새북바람 찬바람에 눈뜰반을 쫓아가니 이구결은  
첩년보소 꽃자리를 피털치며

여안지소 저안지소 어라요년 물러쳐라 꽃자리가 내자리가 꺼적대기가  
내자리지 (중략)

이왕지사 오셨거든 전지귀경이나 하고가소 앞뜰논도 내전지요 뒷뜰논도  
내전지요 전지구경이나 하고가소(7-5 340)

연치겘이 배짜다가 나부겘이 날아내리 제비겘이 절을하여 큰어무니 왔  
섯다가 무어졌고 돌아가요 임오묵던 은담밭대 임오묵던 늦담밭대 담배졌  
고 돌아가소 이내맘이 이럴적에 남자맘은 오죽허리(8-2 94)

7-5 340에서는 첩을 찾아간 본처의 모습과 첩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다. 아무렇게나 집어 입은 행주치마, 짝도 맞지 않는 짚신, 대충 빗어 넘겨 쪽을 진 머리를 한 여성이 본처가 가진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라면 말끔한 모습으로 상냥하게 자기를 맞아들이는 여성은 본처에게 비친 첩의 이미지이다. 첩의 살림살이 또한 본처의 살림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정돈되어 있으며 매우 풍요롭다. 본처의 눈에 비친 첩은 모습뿐 아니라 행동도 살림도 빠지지 않는 매우 순종적인 여성이며 자신과 대조적인 여성이었다. 처음 칼을 들고 첩의 집을 찾을 때에는 본처에겐 자신이 첩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우월감이 있었다. 장기간인 안목에서 볼 때 처가 첩보다 낫다라는 본처의 생각은 <첩노래>에서도

입혀진다. 하지만 첩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 본처에게 첩은 자기 눈에도 예쁘게 보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성이었다.

〈큰어머니 노래〉는 각편에 따라 각각 다른 결말을 보여준다. 본처가 첩의 실상을 깨닫는 데서 끝나기도 하며, 집으로 돌아오거나, 집에 돌아와서 자살하거나, 첩이 죽은 소식을 듣고 좋아하기도 한다. 첩이 죽은 소식을 받는 내용에는 〈시앗죽은 편지받는 노래〉가 이어진다. 이와 같은 결말에서는 첩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인정하고 돌아섰어도 첩과 공존할 수 없다는 본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자신의 집을 둘러보거나 자살을 하는 결말을 통해서도 첩 때문에 파괴된 한 여성과 집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직어려갔든길 집에돌아 와서보니 어린아이 젓달라고 울고있고  
서어나는 어린애기 밥달라고 울고있고 보름새 명주는 멩에걸다 뚫는것  
이(7-18 614)

아가아가 우지마라 니가우니 배가고파우나 아빠가 보고접아우나  
니가우니 내눈에 피가난다 아가아가 우지마라  
너거아부지 뒷동산에 첩으집에 꽃뜰보고 가셨는데  
이내집에 오실라니 첩이친친 발에걸리 문오신다(8-12 632 <첩노래17>)

민요에서 첩에 빠진 남편을 둔 본처의 생활은 매우 비참하게 그려진다. 실생활뿐 아니라 자신의 모습도 그와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피폐해진 본처의 살림살이는 본처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큰어머니 노래〉에서나 8-12 632 <첩노래〉에서 보인 본처의 자살이나 비참한 살림살이는 가해자가 바로 '내 눈에도 예쁘게 보이는 첩'이라고 생각하는 본처의 인식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7) 8-12 632에서는 <첩노래〉라고 이름 붙여 있지만 앞에서 말한 <첩노래〉의 유형에 속하는 노래가 아니라 '본처탄탄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 2.3 불안한 사랑에 의지한 또 하나의 피해자

첩의 입장에서 불린 민요는 찾아보기 힘들며, 첩의 입장을 드러낸 노래라고 여겨지더라도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요에 나타난 첩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읽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다.

어두침침 컴컴한방에 구신같은 영감이얏아  
분질같은 이내몸에 아담따담  
손들온다

지는꽃과 피나는꽃과 연분되기가 왜짤일고(7-14 441 <정노래>)

이 노래에서 주인공은 늙은 영감을 남편으로 둔 처일수도 있고, 늙은 영감에게 팔려간 첩일 수도 있다. 조은, 조성윤의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한 첩이 있는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호주에 비해 첩의 나이가 보통 10세 이상 차이가 나고, 21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최고 52세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 호주와 부인의 연령 차이에 대해서는 부인이 6세 많은 경우에서부터 33세 많은 경우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10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재취처일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sup>18)</sup> 곧,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일 경우, 처일 경우는 드물며 첩이거나 재취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7-14 441의 <정노래>에서 여성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의 성적 도구로써 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으며, 가해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일부 여성에게 있어 첩 제도는 재정적 안정을 가져다 주고, 신분적 상승의 기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sup>19)</sup> 첩 생활 자체에 대해 모두 이

18) 조은 조성윤, 앞의 글, pp.96~97.

와 같이 비판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첩의 의식을 보이는 민요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큰어머니 노래>에서 부인의 눈을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첩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본처의 눈을 통해 보여진 첩의 모습일 뿐, 첩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아니다.

호박은 늙으면 죽이나  
 꿀여먹지 우리인생 늙으면은  
 무엇에다가 쓰나요  
 임도오던 임도안오고  
 임도다가 소용없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난다  
 덜커덕 내사랑아

솔떨어진것은 때우면되지만  
 우리좋은님 정떨어진건  
 어느누구나 때우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난다  
 덜커덕 내사랑아(3-1 508 <어랑타령>)

한송이 떨어진 꽃이  
 낙화가 진다고 슬허말소요  
 피었다가 떨어질 줄을  
 나두 번연히 알면서두

모진 손으루 꺾어다가  
 시들기 전이 버렸으니  
 무슴도 쓰라림도 넘보다  
 아파서 못살겠네

열씨구나 기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4-4 817 <창부타령>)

3-1 508의 <어랑타령>이나 4-4 817 <창부타령>을 첩의 인식을 보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처가 <첩노래>에서 보인 우울감의 반대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만하다. 위의 노래들에서의 여성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남성에게 두고, 남성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자신의 젊음에서 찾고 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남성의 사랑에서 찾고 있는 것은 여성의 삶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삶을

19) 정지영, 앞의 논문에는 적처와 첩 사이에 위계가 만들어지는 데는 그들의 신분적 차이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성임의 앞의 논문에서는 양반의 첩이 된 후 노비의 신분을 속량받기도 하며,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했다고 하였다.

가능케 한 그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민요에서 늙은 첩은 나타나지 않는다. 위의 노래를 통해 유추한다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나이 든 첩의 생활은 비참할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한 첩의 생활을 나타낸 민요는 찾아보기 힘들다.

### 3. 치유와 강화의 딜레마

첩과 관련된 민요는 대부분 본처의 입장에서 불리고 있다. 이는 본처집단이 여성 민요 향유층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첩은 여성 민요 향유층에 끼지 못하며 끼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본처의 입장에서 첩은 가해자이다. 때문에 본처의 입장에서 부르는 대부분의 첩노래의 일차적인 기능은 본처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있다. <시앗죽은 편지받는 노래>나 8-14 <첩노래>에서 본처는 감정에 충실하게 대응하여 첩에 대한 미움을 과장되면서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반면 <첩노래>에서는 첩과 나의 비교를 통한 우월감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법적 사회적 위치를 확보한 본처가 첩보다는 낫다라는 것이다.

<진주낭군>과 <큰어머니 노래>에서는 본처의 죽음에 오열하는 남편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이 노래의 향유자인 본처집단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진주낭군>이나 <큰어머니노래>에서 보인 조강지처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편의 후회의 통곡소리가 실제상황이든 아니든 간



에 이러한 노랫말을 통해 본처집단 스스로 잃어버린 아내로서의 위치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치유'라는 순기능의 이면에 이들 노래들이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가 제시한 가정내 여성의 역할수행을 강화하는데 기능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첩노래>에서 보인 본처의 우월감은 본처의 순종과 인내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본처가 겪는 이러한 문제적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sup>20)</sup>에서 비롯한 본처의 우월감은 궁극적으로 가정 내의 남성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첩은 소유물이며 대를 잇는 도구일 뿐이라는 남성적 시각은 본처의 우월감을 부추기면서 본처의 순종과 인내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양반사회에서의 본처와 첩의 공존은 철저히 위계질서를 지킴으로써 가능하였다. 첩이 본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부인의 입지는 확실했지만 부인이 질투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았다. 부인의 질투는 집안을 망하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며, 부인의 질투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첩을 둔 남성은 철저하게 면죄부를 받고 모든 책임은 부인이 져야했다. 곧, 본처는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했다.<sup>21)</sup> 양반 여성들도 투기란 근본적으로 남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의 투기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알기 때문에 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sup>22)</sup>

20) 연못붕어는 사철이지만 꽃과나비는 봄한철이요

세상에 비관올마오 금전없는 한올마오 꽃핀후에 열매가열고 고생끝에 낙이  
로다(4-1 560)

21) 정지영, 앞의 글.

22) 박무영, 앞의 글.

민요에서 부인은 투기하지 않는 자는 아니다. 첩에 대한 미움을 과장된 욕설로써 풀어내기도 하며, 첩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첩의 집에 찾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결코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남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남편은 제외된 채 여성과 여성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축첩과 같은 일이 반대로 본처가 정부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문제적 상황의 표현양상과 문제의 해결방법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sup>23)</sup>

이도령이 하는말이 외방장사를 나간다고 민빫 참빫 사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들밧날밧 옛만보네 기집년에도 거동을 보아라 이도령없는 싹을 알고 건넌말김도령 오기만기다리네

건넌말 김도령은 산을넘고 물을건너 아니밤중에 들어와서 여보여보 김도령왔으니 문을여오

기집년에도 거동을보아라 김도령목소릴 알아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김도령허리를 얼싸안고

대문을열고 중문을열고 분합문 열고 (중략) 금실금실도 잘도는다

이도령이 들어와서 여보여보 벗넘네왔으니 문좀여오 기집년에도 거동을 보아라 이도령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애고지구 설운지고 김도령의 누체는 어찌할까 삼대사대 내려오는 반다지 속에다 집어넣고 거문걸고 자물쇠로 어슷비슷이나 잠귀놓고 문을 열러 나가누나 (중략)

반다지를 걸머지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반다지문을 열고보니 새빨간 몸

23)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고 여성과 남성의 입장을 그대로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 사회에서 일어난 일의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에 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그 해결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성에 관한 행동양식과 사회의식을 그대로 바꾸어 놓고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나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민요에서 보이고 있는 본처의 첩과 관련한 문제적 상황의 해결 양상과 남편의 정부에 대한 그것의 비교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똥이가 들어앉았네

여보여보 니두 건달 니두나 건달인데 너는 너 같 데루만 행차해라 반다  
지를 불지르겠다

반다지를 불지르고 내려오니 기집년에도 거동봐라 김도령이 죽은줄알고  
오색가지 보에다가 약주술 한 병을 사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애고지  
고 우는말이

김도령이 살아계실적에 범벅두잘두 잡수시더니 죽단말이 웬말인가  
기집년을 달려들어 머리채를 칭칭 감어들고 얹어놓고선 배를갈까 찢혀  
놓고선 목을갈까(1-3 531 <범벅타령>)

<범벅타령>에서는 여성의 경우에서처럼 부인은 배제된 채 본남편과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남편이 부인의 정부인 김도령을 풀어주고 부인을 죽이려 한 것은 부인이 정부를 둔 일이 전적으로 부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과 달리 행동한 것은 문제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진주낭군>에서의 본처의 자살은 불합리한 삶을 인지하지만 그 삶을 개선해볼 여지 또한 전혀 없음을 깨닫고 보여준 행동<sup>24)</sup>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성과 다른 본처의 해결방식은 가부장제 하에서의 양반 부인이 철저히 투기하지 않음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가부장제 질서 하에서의 여성의 생존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이 노래들은 문제의 핵심을 흐리고 있는 한계를 가짐으로써 남성중심의 질서를 강화하는데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24) 줄고,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여성문학연구』 9호(여성문학학회, 2003), pp.188~210.

#### 4. 맺음말

첩 관련 민요에서 보인 첩의 위상과 첩 민요의 기능은 가부장제하에 서의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첩 관련 민요에 나타난 첩의 이미지는 화자의 가정 내의 위치와 성적 정체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남성적 시각을 통해서 나타난 첩의 이미지는 남성에게 속한 삶을 사는 도구화된 존재이자 성적 욕망을 해소시키는 자기 과시적 소유물로 그려지고 있다. 본처의 눈을 통해 나타난 첩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반면 첩 스스로의 시각을 통해 나타난 첩의 이미지는 나이 많은 남성의 성적 도구로밖에 살 수 없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첩에 대한 남성적 시각과 여성적 시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곧, 첩을 늘 곁에 두고 싶어하는 남성에게 있어 첩은 도구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스스로를 성적 도구로 인식하는 첩은 물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본처에게는 첩이 도구화된 인간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첩을 도구적으로 인식하던 한 인간으로 인식하던 공통적으로 그 안에는 주체적인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적 시각 안에서의 도구화된 첩의 존재는 물론 본처의 위상이 첩보다 낫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본처의 시각 안에서조차 주체적인 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처의 공지를 강조하는 그 이면에는 본처의 순종과 인내의 삶이 담보되어 있으며, 문제적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도 문제적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제쳐둔 채 첩을 아름다운 가해자로 그려냄으로써 여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첩의 시각에서 보인 첩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주체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주체적인 삶의 상황에 대한 인

식 그 자체가 극히 비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결국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자세와 여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이들 노래들은 카타르시스라는 긍정적인 기능 이외에 남성중심의 질서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가부장제의 질서 하에서의 여성의 자기표현 방식이자 생존방식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대응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과 여성』(한국구비문학회편, 박이정, 2000), pp.91~122.

계정학, 「축첩군을 쏘노라」, 『실생활』 3권 6호(1932.6.), pp.28~31.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여성문학연구』 9호(여성문학학회, 2003), pp.188~210.

박무영, 「남편의 '잉첩'과 아내의 '적국'-「한씨규훈(韓氏閩訓)」과 「자경편(自警編)」의 '첩다루기'가 의미하는 것」, 『문헌과 해석』 18호(태학사, 2002).

서영숙, 『시집살이 노래연구』(박이정, 1996), pp.44~48.

이성임, 「조선중기 양반의 성관념과 그 표출양상」,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집문당, 2003), pp.1~467.

이이효제, 『조선조 사회와 가족』(한울아카데미, 2003), pp.106~109.

정병설, 「가정설화의 여성적 시각-첩과 계모이야기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7호(진단학회, 1999), pp.517~528.

정지영, 「조선후기 첩과 가족질서-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호(한국사회사학회, 2004.5), pp.6~37.

조은 조성윤, 「한말 서울지역 첩의 존재양식-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호(한국사회사학회, 2004.5), pp.74~100.

Abstract

## A Representation about the Concubine Shown in the Folk Songs

Kihl, Tae-Suk

This study examined to a perception of singers which is represent from folk songs about concubine, functions of the songs for folk singers as well.

The songs present each opinion of wives, husbands and concubines that is concerned with the concubine. Usually the opinion of wives comes into most of these songs and occasionally the other's opinion comes out.

In the songs, the man descript to the concubine is a lovely woman, a self-conspicuous property and a tool for having an heir. It means the concubine has two conflict concepts from man's point of view. One is a woman who got to love from a man, the other is a tool of the man's posterity. This contradictory conception of a lovely woman and a tool gives evidence that the concubine is considered an instrumental being rather than a subjective human being by men.

On the other hand, the concubine is recognized a human being who is taken the other woman's husband by the wives. The wives thought concubine as a assaulter. We can see the wives show us the hostility to the concubine, but it can be read in the back of the hostility that the wives take the concubine as an attractive woman as much as their husbands love.

By the way the concubine considers herself a victim spending her time as only sex partner of an old man. But this conception appears very individually and restrictively. And it could not make main stream. Because wives made the main group of the singers. So the concubine could not join that group. Even though the concubine took a part in that group, she could not display

her intension.

So, the songs shown in the perception of wives have the function of healing a wounded heart from the concubine by abusing concubine exaggeratedly, and by appearing the conception that a position of wives is better than concubines. But these songs represent the problem situation as women verse women and promote wives' endurance by instigating wives pride, they may work to firm up patriarchal system.

**key words** : concubine, songs concern with concubine, perception of concubine, an instrumental being, a assaulter, only sex partner of an old man, patriarchal system, women verse women, the function of healing a wounded heart.

■ 위 논문은 3월 30일 투고되어, 4월 20일 심사 완료 후, 5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